

보도시점 10시 30분 이후 배포 2026.7.31.(금)
(사진 11:00 이후)

청년 59명, 글로벌 조달 전문인력으로 사회 ‘첫발’

- 조달청, 「2026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 채용상담회 참여기업 27개사로 최고치 기록,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관심 증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31일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2026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해외B2G 직무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총 59명의 교육생들은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벤더 등록, 입찰공고 분석 및 제안서 작성방법, 효과적 마케팅 방식 등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특히,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실무 과제를 부여받은 후 현장방문, 멘토링을 거쳐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진행하는 등 현장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한편, 교육생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상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개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료증 수여와 함께 우수교육생 3명에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 기업 협력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팀에게는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장상이 수여되었다.

최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이정민 교육생은 “글로벌 조달시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배운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수료식에 참석한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글로벌 조달시장의 핵심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이라면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고성주	(042-724-6492)

